

광산구, 집중호우 대비 주민 안전 확보 총력



광산구청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배수시설 일제 정비 주민 안전 최우선...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배수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도로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지하차도, 하천 주변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배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퇴적물과 생활쓰레기 등 배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설물 이상 여부를 확인해 집중호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현장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예경보 시스템과 재난문자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지대와 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체계에 함께 점검한다.

광산구는 자율방재단과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현장과 급경사지, 축대, 옹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집중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광산구는 이번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난관리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남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합니다”

9~15일 접수, 일반 음식점 10곳 선정 주방 시설 개선·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의 주방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 모집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음식점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취급 업소로,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3년 이내 노후 주방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는 제외이다.

남구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일반음식점 가운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주방 내 위생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업소당 100만원 내외에서 노후된 화구와 푸드, 덕트, 벽면, 천장, 바닥, 환기시설, 식품 보관 장소 청소 등을 지원하며, 업소별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일부터 15일 사이에 남구청 4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grassblade@korea.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방은 음식점 경쟁력은 물론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사업 참여 업소가 개선된 위생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설 개선이 완료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위생관리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과 조리기구 관리, 개인위생 수칙 등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시설 개선과

함께 위생관리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고려해 냉장·냉동 시설 관리와 교차오염 방지, 조리기구 소독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주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위생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주방 정비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